옵토매직, 분자표적 항암제 개발 추진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 옵토매직이 국내 최고의 암치료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항암제 개발에 나선다.
옵토매직은 1월22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글로벌 신약개발을 위한 포괄적 공동연구개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옵토매직은 신약개발 플랫폼 기술과 글로벌 신약개발 경험 및 노하우를 활용해 신약후보 물질을 개발하게 되며, 아산병원은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전임상 약효 연구, 약물동력학 연구와 임상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양기관은 첫번째 공동연구 과제로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혁신형 암 연구중심병원사업단의 <분자표적 항암제 개발> 프로젝트를 2009년 12월에 시작한 바 있다.
세계 항암제 시장은 2009년 630억달러에 달해 전체 제약시장에 비해 2배 이상 빠르게 신장하고 있다.
옵토매직과 아산병원은 항암제 연구를 통해 매출액이 10억달러를 넘어서는 블록버스터 분자표적 항암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첫 번째 본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글로벌 연구개발 동향에 맞는 최신 항암 타겟을 기반으로 하는 분자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첫 분자표적 항암제 개발 프로젝트는 2011년 전임상 돌입, 2012년 임상진입 및 다국적 제약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화학저널 2010/2/8>